

 관계부처 합 동	보 도 자 료 5월 8일(금) 회의 시작(10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0. 5. 8. / (총 5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 장 담 당 자	방 영 식 (직무대리) 조 호 식	전 화	044-202-2903 044-202-2926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과 장 담 당 자	송 양 수 정 지 원		043-719-8010 043-719-84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치료제·백신TF	과 장 담 당 자	신 재 식 강 성 환		044-202-6170 044-202-6171

범정부 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속도 낸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 개최 (5.8) -

- 국내 자체개발과, 해외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
- 완치자 혈장채취 기관 확대 및 절차 명확화로 혈장치료제 개발 지원
- 공공 생물안전시설(BL3) 보유기관과 기업을 매칭하여 유효성 평가 지원

□ 정부는 5월 8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동향 및 전략을 점검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단장), 관계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정부는 지난 4.17(금)부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 회의를 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기업에 대한 밀착상담 및 애로사항 발굴·신속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치료제·백신 분야 21개社에 대한 심층상담(5.6~5.7)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의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현황에 따르면,
 - 치료제분야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말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 백신분야에서는 후보물질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는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시급한 제도 개선사항 2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먼저, 혈장치료제 개발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혈장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이 다량 필요하나, 채혈행위는 의료기관만이 가능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연구용 혈장 채혈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으로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혈장채혈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성분채혈기 임대를 통해 혈장채혈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의료법 제33조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추가적으로, 치료제 개발용 혈장 채취에 관한 세부 절차를 담은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취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혈장 채취 표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 또한, 민간(기업)의 치료제·백신개발 촉진을 위해 생물안전시설의 민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는 생물안전3등급시설 (BL3)을 필요로 하나, 민간에서는 자체시설 구축이 어려워 공공기관 BL3 시설의 개방·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그간 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시설 이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에 BL3 운영기관 목록을 게시하고, 민간(산·학·연)의 연구시설 이용 수요를 검토 후 BL3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공기관 BL3 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 질병관리본부 내에 생물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부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을 구성하여, 수요 접수·우선순위 검토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제·백신개발 지원정책에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치료제·백신을 국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산·학·연·병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와함께 해외 개발 제품이나 원료, 필수 방역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관계부처가 함께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며, 각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다양한 만큼, 규제개선부터 R&D 자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치료제와 백신개발”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과 2차유행 가능성, 향후 제2, 3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학·연 전반에서 치료제·백신 관련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하면서,
- “치료제·백신 개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도약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 개요

참고

법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 : '20. 5. 8.(금)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룸(2층)
- 논의 안건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동향 및 전략(안)
 - 규제개선, R&D 서비스 등 지원 현황 및 계획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 및 대응

□ 참석 대상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단장 (2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정부 (8명)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이의경	식약처	처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전문가 (7명)	오명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백신실용화사업단장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한국역학회 회장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	
	송창우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장	
	정낙신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